영암 '바둑테마파크' 12년 만에 무산

2009년 문화관광부 관광지 지정 경제성·사업타당성 미흡 좌초 행정·예산 낭비, 재산권 피해 비판

영암군이 추진했던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사업이 관광지 지정 12년 만에 최종 무산됐다. 전남 17개 시·군 28개 관광지 중 지정이 취소된 관광지는 바둑테마파크가 유일하다. 치밀한 사업성·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행정력과 예산을 낭 비하고 사업 대상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를 제한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은 최근 영암군 영

암읍 개신리 일대 50만4900㎡ 부지에 6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던 '바둑테마파크'에 대한 관광지 지정을 취소해줄 것을 전남도에 신청했다.

영암군은 애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도비와 군비등 400억원과 민간자본 200억원을 들여바둑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난 2009년 해당 부지 일대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됐었다.

영암군은 당시 고대 일본바둑의 전수자인 왕인 박사와 한국바둑의 기성 조훈현 9단의 고향인 점 등을 연계, 바둑테마파크 조성에 나선 바 있다.

영암군은 테마파크에 바둑 관련 각종 자료를 전 시하고 바둑경기장과 연수원 등을 짓고 바둑판, 바둑알 공장 등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경제성·사업타당성 등이 미흡해 전남도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고 결국 사업 좌초로 이

전남지역의 경우 17개 지역에 28개 관광지가 지정된 상태로,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소된 곳은 영암이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기존 관광지 중에도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외면받고 있는 노후 관광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정 취지에 맞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영암군 관계자는 "바둑테마파크 조성계획이 무 산됨에 따라 관광지 지정 취소 이후 관광지 지정되 기 전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자치경찰위, 독거노인 범죄 안전활동 강화 방안 논의

여성·청소년 분야 전문가 초청 회의 전남경찰 '안전 활동 강화' 주제 발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가 지난 20일 정책자문단 3개 분과 중 여성·청소년 분야 전문가 초청 회의를 열어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1호 시책과 관련해 독거노인 범죄 안전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교통분과와 생활안전분과에 이어 세 번째로 열 린 이날 여성·청소년 분과회의에서는 최근 어르신 범죄가 크게 느는데다,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성폭력, 학대 등 범죄가 다양화하고 있어 근본적 범죄 유형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어르신을 범죄 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경찰청은 '독거노인 범죄안전 활동 강화' 주 제 발표를 통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을 안 전취약 노인으로 집중 관리, 주거지 주변 순찰 노 선 지정, 학대·보이스피싱·성폭력·실종 등 범죄 유 형별 맞춤형 교육 등 계획을 소개했다. 전남도자치



경찰위원회는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 전대책' ▲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의 6억 원 규모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드론을 활용한 섬 지역 범죄 예방사업'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 원 확보를 통한 '유인(有人) 섬 정기항로 선착

장 내부영상망(CCTV) 설치 사업'▲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순관 순천대 교수를 단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33명, 3개 분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남 방문의 해' 중동 관광시장 개척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관광 로드쇼 한국 자치단체 대표로 참석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2022~2023 전남 방

문의 해를 맞아 중동 관광시장 개척에 나섰다. 두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두바이 지사가 지난 15 ~16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젯다에서 주최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기념 한국 관광 로드쇼' 에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로 참석해 사우디 여행 사, 미디어를 대상으로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우디의 한국 관광 로드쇼는 15일 수도인 리야 드의 하얏트 호텔, 16일 젯다 크라운 호텔에서 진 행됐다

한국과 한류에 대한 호감도를 가진 영향력 있는 대표 여행사와 미디어, 주 사우디 대사, 사우디아 항공 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해 관광 정보를 교류 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고 파리 패션위크 패션쇼가 열렸던신안 퍼플섬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주로 소개했다. 무슬림 친화 음식을 포함한 전남 관광파워포인트(PPT) 발표 및 영상 홍보를 통해현지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특히 전남도는 15일 사우디 송출 여행사 플라이

어키드(FlyAkeed), 사우디 온라인 여행 전문 플 랫폼 운영사 실키시스템즈(Silky systems), 중 동 관광객 유치 여행사 ㈜크레펀과 업무협약을 하고, 전남 관광 홍보 및 중동 관광객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 관광시장이 빠르게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주력 관광객인 중국과 일본 관광 시장이 폐쇄된 상 황에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 세계 인구의 25%인 19억 무슬림 관광객에 대한 관광 홍보에 집중해 소득을 올린 셈이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 두바이 관광설명회에 참석해전남 관광을 알렸다. 하반기에도 말레이시아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마음건강치유센터 치유 프로그램 포스트 코로나 행복한 일상회복 돕는다

소상공인·현장대응인력 등 1200여명 대상 70회 운영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에게 활력을 드리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장흥에 있는 전남 도마음건강치유센터의 치유프로그램을 확대 운 영한다.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원광대 장흥통합 의료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도, 장흥군, 국립나주병원 등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과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개소한 치유센터는 코로나19 현장 대응인력, 소상공인, 노령층을 대상으로 총 30회시범 운영해 참여자의 96%가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참여자의 사전·사후 심리검사 결과, 우울과 불안이 각각 74%, 48%로 대폭 줄었다.

이같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정신건강위험 군, 소상공인, 코로나19 현장대응인력, 소방·경찰 공무원 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70회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총 5개로 '마음 쉼', '정신건강-UP', '마음은 청춘', '어울림', '마음 허그'다. 건강검진, 스트레스 및 심리검사, 한방치료 등 통합의료서비스와 아로마테라 피, 소금찜질, 경옥환 만들기 등 힐링체험 과정으로 구성됐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기간 지속 된 코로나19로 도민의 몸과 마음에 피로감이 쌓 이고 있다"며 "마음건강치유센터를 통해 도민들 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힘 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육성

담양 대덕 '이야기지도' 등 17개 주민 주도 공동체문화 확산 지원

전남도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 치 실현 및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 시한 '2022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 모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17개소를 선정했다. 선 정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 획에 따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다문화, 세대 간 갈 등, 환경문제, 주민복지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신청한 47개 프로그램 중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17개 프로그램을 선정,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500만 원 등 총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심사위원의 가장 큰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은 담

양 대덕면 주민자치센터의 '마을 이야기꾼과 함께 그려내는 이야기지도' 사업이다. 자신이 사는 마을을 소개할 이야기꾼을 양성하고 마을 소개 자료 인 이야기 지도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구성원과의 유대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공동체 문화 형성의 필수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화합을 이끄는 해남 현산면 주민자치센터의 '현산에서 잘 살아보기' 사업과 지역민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제공하는 고흥 도양읍 주민자치센터의 '플레이 도양 팝업놀이터' 사업 등 지역 특색을 잘 살린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이번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창의성 있는 프로 그램을 운영하도록 해 주민의 사업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5월 친환경농산물에 '유기농 양파'

전남도는 '식탁 위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유기 농 양파를 5월 대표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양파는 매운맛과 단맛이 있는 양념 채소로 찌개 나 볶음, 국,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인다. 양 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은 체내에서 알 리신으로 변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 속 콜 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심장병 같은 성인병을 예방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유기농 양파는 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 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껍질부터 뿌리까지 안심 하고 먹을 수 있다. 일반 양파보다 향이 강하고, 영 양도 더욱 풍부하다.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는 무안이다. 무안의 농가 중에서도 강경석씨는 유기농 양파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강씨는 작물 생장 중 발생하는 균과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용미생물(EM) 원액을 배양, 유황과 함께 1주일 간격으로 작물에 뿌린다. 유용미생물 원액은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해만든 친환경제제다. 과일 세척, 청소 등은 물론 식용으로 쓰일 정도로 안전하다.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양질의 황토에서 유기 농으로 재배된 강씨의 유기농 양파는 무안군청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979 m² (296.14평)

■ 건물: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